



## 노원구의회 소식

### 노원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일정 절반 단축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가 2020년 8월28일부터 제261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등 426억원 규모의 3차 추경예산이 처리된다. 다만 의회는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2020년 9월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축소했다. 의회에 따르면 제출된 3차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415억원, 특별회계 11억원 규모다.

코로나19 관련 주요 편성 예산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유치원과 초·중·고방역 사업 등이다. 주요일정은 2020년 8월28일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0년 8월31일~9월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했다. 이어 2020년 9월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거쳐 2020년 9월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노원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비롯해 노원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노원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총 15건의 안건도 처리했다.

### 노원구의회, 노원구보건소 격려방문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는 2020년 8월28일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인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최윤남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선별진료소, 보건소 등을 차례로 방문하여 선별진료소 운영체계,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방역 진행 상황 등을 청취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밤낮없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무자들에게 간식과 음료수 등을 전달하며 노고를 격려했으며, 의원들은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는 등 상황이 엄중한 만큼 구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줄 것을 요청하며, 노원구는 어르신, 어린이가 다수인 만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최윤남 의장은 "코로나19 지역 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구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노원구민회관 공사현장 점검



서울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차미중) 소속 의원들이 리모델링 사업진행중인 노원구민회관 공사현장을 2020년 8월20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강당 등 주요시설 등을 점검했다. 노원구민회관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009㎡ 규모로 지하1층은 강의실과 푸드마켓, 1층은 대강당과 노원서비스공단, 2층과 3층은 자원봉사센터 등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시설 노후화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어 대강당 시설 현대화, 외관 이미지 개선, 이용자 편의시설 개선 등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으며 11월 준공예정이다.

이날 현장 방문은 제261회 임시회에 앞서 노원구민회관의 리모델링 공사 진행현황을 살펴보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 등을 결한 것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노원구청장을 비롯한 관리부서인 행정지원과, 건축과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현장소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리모델링 공사 진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이후 공사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공사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건축, 방수, 통신, 전기 공사 등 공사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차미중 행정재경위원장은 코로나19,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고충이 많겠지만 안전수칙을 생활화하여 안전사고 없이 공사를 완료해 줄 것과 많은 구민들의 문화여가 생활을 책임지는 시설인 만큼 공사완료 후에도 하자발생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 및 공사를 당부했다.

### 노원구의회, 주거복지정책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는 노원구 주거복지정책 관련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2020년 7월 29일 오전 11시 8층 소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노원 주거복지정책 연구회」는 25개 자치구 중 주거취약계층이 비교적 많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이한국 의원을 대표로 이칠근, 강금희, 변석주, 주연숙 의원이 참여하여 2020년 9월30일까지 활동할 예정으로 전문성을 갖춘 연구를 위해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윤수찬 교수는 국내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 문제가 사회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주거정책 수립 및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에 대해 연구계획을 보고했다. 이한국 의원은 "노원구는 서울시 주거급여대상자 중 8.8%가 거주하고 있으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밀집 거주하고 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이 절실히하다."고 밝혔다. 노원구 의회는 「노원 주거복지정책 연구회」 뿐만 아니라 「노원 살림살이 연구포럼」 연구단체도 운영할 예정이어서 의원의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